

‘슈퍼 루키’ 박성현 이젠 ‘슈퍼 스타’

US여자오픈 역전 우승...LPGA 첫 승을 메이저로

15번 홀 7m 버디 퍼트 넣고 단독 선두 올라
지난해 준우승 아쉬움 딛고 14번째 만에 첫 승
최혜진 2위·유소연 3위 등 한국, 톱10에 8명

‘슈퍼 루키’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제72회 US여자오픈 골프대회(총상금 50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박성현은 17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파72·676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의 성적을 낸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 박성현은 14번째 대회 출전 만에 자신의 첫 우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장식했다. 우승 상금은 90만 달러(약 10억 2000만원)다.

14번 홀(파3)까지 9언더파로 평산산(중국), 아마추어 최혜진(18)과 함께 공동 선두를 달린 박성현은 15번 홀(파5)에서 약 7m 긴 거리 버디 퍼트를 넣어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최혜진도 15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 공동 선두로 추격했으나 16번 홀(파3) 티샷을 몰아 빠트리며 우승 경쟁에서 탈락했다.

평산산을 1타 차로 앞서던 박성현은 17번 홀(파4)에서도 버디를 낚아 2타 차로 달아나며 우승을 사실상 확정했다.

평산산은 마지막 18번 홀에서 트리플보기를 기록하며 6언더파 282타, 공동 5위까지 밀려났고,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잡은 최혜진이 9언더파 279타로 단독 2위에 올랐다.

한국 선수들은 세계 랭킹 1위 유소연(27)과 허미정(28)이 7언더파 281타로 공

동 3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상위 랭커 자격으로 출전한 이정은(21)이 공동 5위를 기록했다. 공동 8위까지 상위 10명 중 8명이 한국 선수들이었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박성현의 우승으로 US여자오픈에서 통산 9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1998년 박세리를 시작으로 2005년 김주연, 2008년과 2013년 박인비, 2009년 지은희, 2011년 유소연, 2012년 최나연, 2015년 전인지가 역대 한국인 US여자오픈 우승자다.

2014년에는 재미동포 미셸 위가 우승하는 등 2011년 이후 한국 또는 한국계가 아닌 선수가 이 대회 정상에 오른 것은 지난해 브리트니 랭(미국)이 유일할 정도로 최근 US여자오픈에서 한국 선수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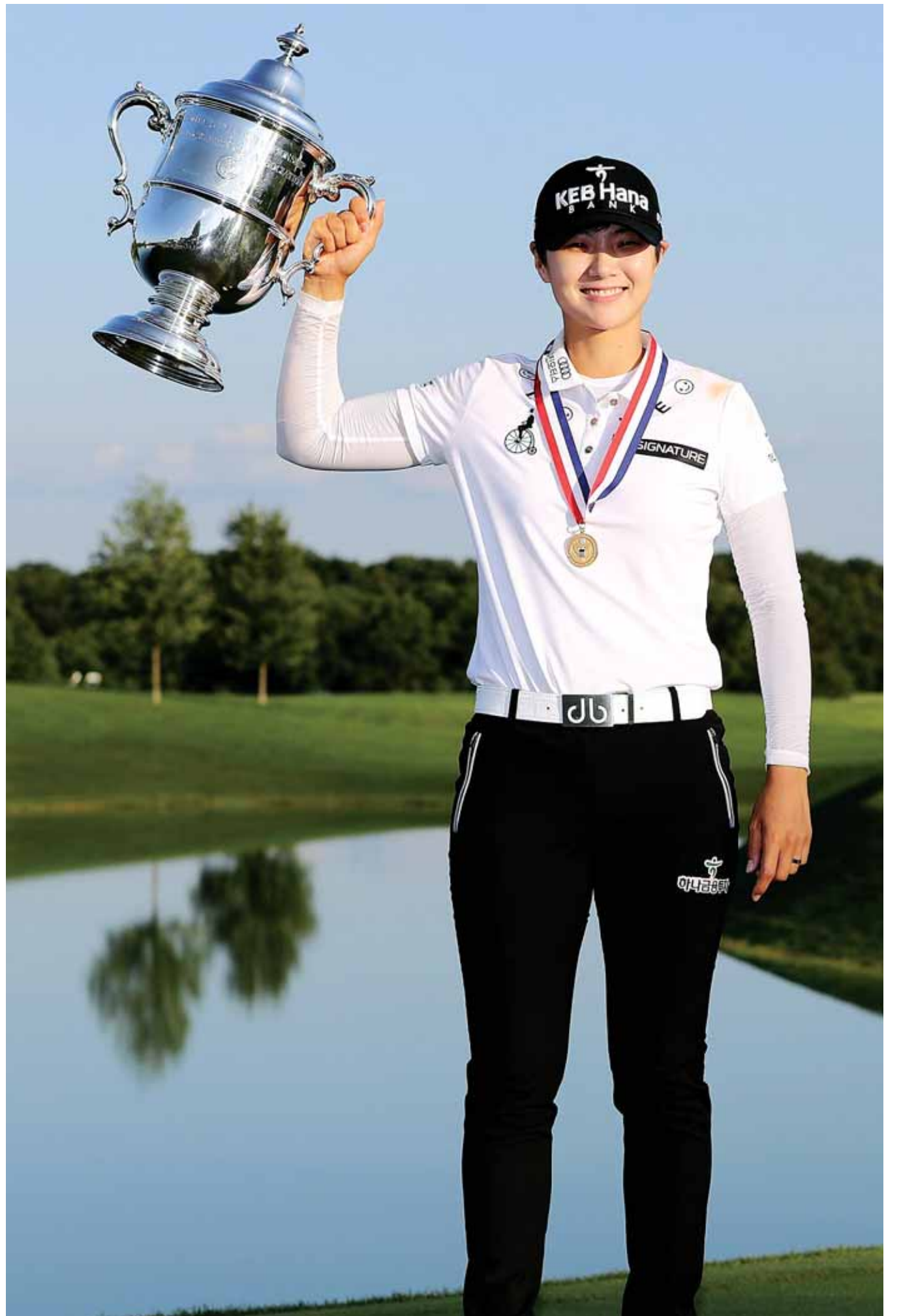
또 올해 열린 세 차례 메이저 대회에서 4월 ANA 인스퍼레이션 유소연, 지난달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재미동포 대니엘 강(25)에 이어 이 대회에서 박성현이 정상에 오르는 등 한국 및 한국계 선수들이 메이저 우승을 싹쓸이했다.

박성현은 우승을 차지한 뒤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실감 전혀 안 난다. 뭔가 구름 위를 떠가는 기분일까, 이상하다”며 “이전에도 다른 대회를 치르면서 우승 기회가 많았는데, US오픈에서 우승해 특히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대회에서 샷 감각이 정말 좋았다. 4일 중 이를 정도는 몰아치기가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3·4라운드에 나와줘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막을 내린 US여자오픈 골프대회 우승자 박성현이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수비훈련을 소화한 KIA 투수들이 1루 베이스 커버에 들어간 팻틴을 응시하고 있다.

1위 수성보다 기록 도전 더 흥미롭다

T 타이거즈 전망대

주중 고척·주말 롯데와 홈경기
헤터 15연승·최형우 1천타점
팀 첫 4300도루까지 4개 남아

일찍 삼패인을 타트리기 위한 ‘호랑이 군단’의 질주가 재개된다.

KIA 타이거즈의 후반기가 17일 시작됐다. 이날 KIA 선수들은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한 뒤 후반기 첫 시리즈가 펼쳐지는 고척으로 향했다.

전반기를 8경기 차 1위로 마무리했던 KIA는 넥센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에 이어 주말 롯데 자이언츠와 홈경기를 갖고 1위 굳히기에 들어간다.

공·수에서 전력의 변화가 있다.

일단 고척돔 타석에 안치홍이 다시 선다. 지난 7일 대구구기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안치홍이 신중갑을 대신해 18일 엔트리에 등록된다.

선발진 로테이션도 조정됐다.

앞서 헤터-양현종 ‘원투펀치’가 나란히

■ KBO리그 순위 (17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KIA	85	57	0	28	0.671	0.0
2	NC	84	48	1	35	0.578	8.0
3	SK	88	48	1	39	0.552	10.0
4	넥센	86	45	1	40	0.529	12.0
5	두산	82	42	1	39	0.519	13.0
6	LG	82	41	1	40	0.506	14.0
7	롯데	86	41	1	44	0.482	16.0
8	한화	85	36	1	48	0.429	20.5
9	삼성	88	34	3	51	0.400	23.0
10	kt	84	28	0	56	0.333	28.5

등판했었지만 전반기 마지막 경기 이후 올스타전까지 소화했던 양현종이 뒤로 물러나 주말 마운드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그리고 앞선 11일과 13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불펜으로 출격해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던 임기영도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정용운 역시 선발진에서 힘을 보탠다.

기록 행진으로 전반기 1위 자리를 지켰던 KIA는 후반기 첫 주에도 기록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18일 넥센을 상대로 후반기 스타트를 끊는 헤터가 최다 연승 기록 연장을 노린다.

‘무패 행진’ 헤터는 앞선 11일 NC전에

서 시즌 14승을 신고하며, 지난 시즌까지 더해 15연승을 달렸다. 벤해겐이 가지고 있던 14연승을 넘어 외국인 선수 최다 연승 기록을 새로 세운 헤터가 자신의 기록 경신을 노린다.

4번 타자 최형우의 ‘해결사 본능’에도 눈길이 간다. 최형우는 앞으로 8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면 15번째 1000타점 기록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초반 부진을 털고 중심타선 앞·뒤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전·현직’ 캡틴도 기록 달성을 준비하고 있다. ‘캡틴’ 김주찬이 2루타를 하나 더 때리면 300 2루타(21번째)가 기록된다. 2300루타(-7·30번째)도 올려본다. 이병호는 16번째 2800루타에 6루타를 남겨두고 있다. 또 900사사구(13번째)에도 두 개가 부족하다.

전반기 마지막 등판에서 9K를 찍었던 양현종은 앞으로 8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면 4년 연속 100탈삼진(23번째)의 주인공이 된다.

팀 첫 번째 기록 달성도 기대된다. 앞으로 4명의 주자가 베이스를 훔치면 팀 첫 번째 4300도루가 채워진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조기 우승 확정 위해 지금부터 스피트 할 것”

후반기 맞는 김기태 감독

지금도 힘 비축할 시간 아냐

넥센 등 첫 2주간 일정 중요

전반기를 8경기 차 1위로 마무리한 KIA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이 후반기 스피트를 예고했다.

1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후반기 첫 훈련을 지휘한 김 감독은 “지금 위치에서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는 게 목표다”며 “마라톤으로 따지면 지금은 힘을 비축할 시간 아니다. 마지막 스피트를 해야 할 시간이다. 남은 숫자에서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 시즌 처음에는 많은 게임을 대비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은 승 마진 자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1위 수성을 넘어 조기 우승 확정을 목표로 하는 KIA에는 후반기 출발이 중요하다. 김 감독 역시 후반기 첫 2주에 주목하고 있다.

김 감독은 “넥센과의 원정경기를 시작으로 롯데, SK, 두산과의 일정이 진행된다. 2주간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KIA는 새로 편선된 로테이션으로 후반기 스타트를 끊을 예정이다. 주중 김



김 감독은 “기술 훈련도 중요하지만 트레이닝 파트에서 체력 우선으로 캠프를 준비했다. 또 체력 안배를 위해 기술 훈련을 줄이는 등 대처를 잘하고 있다. 체력이 우리 팀의 강점이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선수들의 ‘힘’이 김 감독이 꼽는 큰 무기다.

김 감독은 “두산전 훈련을 맞고 3연패를 당하기도 하는 등 전반기에 세 차례 정도 위기가 있었다. NC전 3연패의 경우도 전부터 징후는 있었다. 하지만 그런 걸 이겨낼 수 있었다는 점은 선수들의 힘이다. 혼자만 아니라 전체 선수들이 잘해줬다. 음식에서 도와준 선수들도 있다.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전반기 1위 질주를 이어온 선수들의 힘을 이야기했다.

선수단에 고마운 마음을 표한 김 감독은 “10번 타자”로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는 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감독은 “팬분들 고맙고, 대단하다. 개막 전에도 팬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드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심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현재 유지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체력’은 김 감독이 꼽는 후반기 KIA의 큰 전력이다. /김여울기자 wool@